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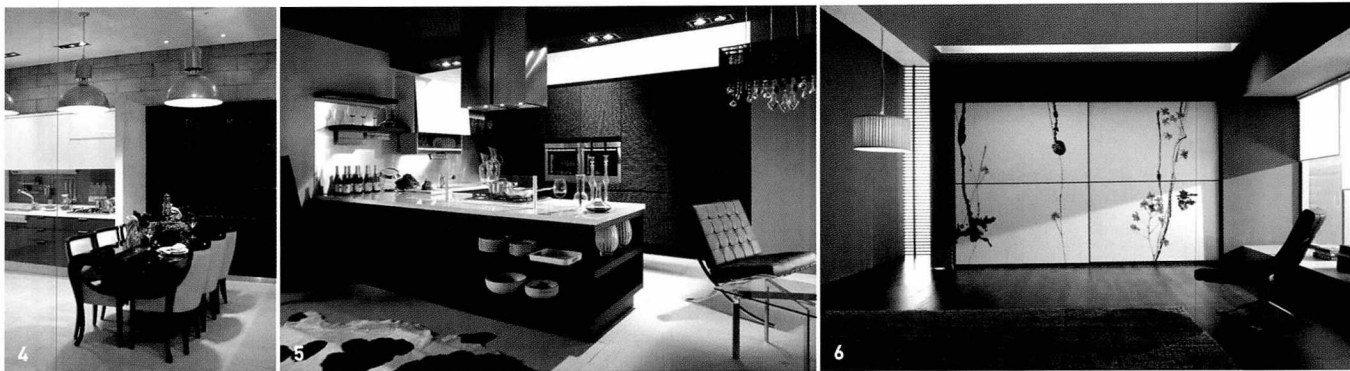
우리집에 꼭 맞춘 가구

시스템 가구 시장을 잡아라

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규격화 · 획일화된 가구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 딱 맞춘 나만의 가구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 맞춰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오던 시스템 가구 시장에 대기업과 해외 유명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에디터 | 최보윤 · 사진 제공 | 리버트, LG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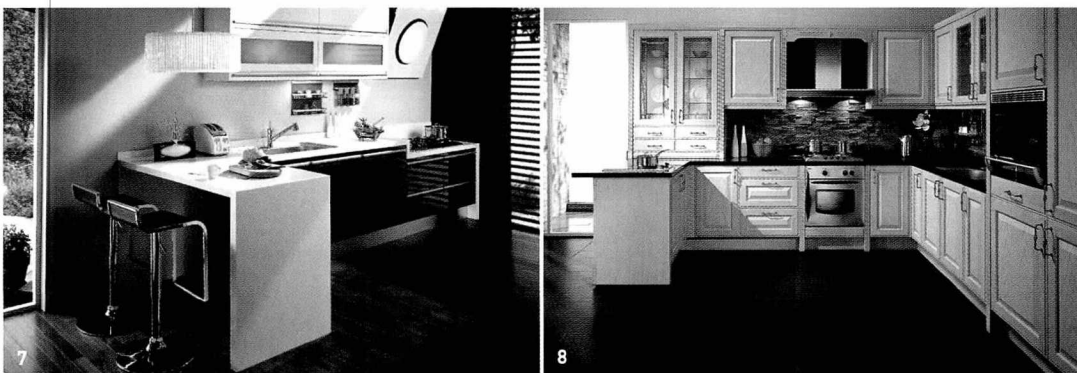


시스템 가구(Systematized Furniture)란 일반 인테리어 가구와 달리 공간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 가구류를 통칭하며, 벽면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붙박이장, 부엌의 작업대와 수납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시스템 가구 시장은 소규모 비(非)브랜드 제품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 가구나 하면 저가의 조립식 가구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자신의 주거 공간에 맞게 기호를 반영해 설계하고 시공하는 시스템 가구 시장이 점차 각광받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스웨덴 유명 인테리어 유통 메이커인 이케아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시스템 가구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존 국내 시스템 가구 시장은 한샘, 에넥스, 리바트 등의 전통 가구업체들이 장악해 왔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가구업체는 저가 제품, 이탈리아와 영국업체는 고가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구성했다. 하지만 LG화학이 5월 24일 서울시강서구에 150평 규모의 시스템 가구 전시장 'maison de Z:IN'을 오픈하며, 붙박이장, 주방 가구 등 시공이 필요한 시스템 가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시스템 가구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이 신규 론칭하는 시스템 가구는 고품격 프리미엄 제품으로 업계 최초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고객 맞춤형 설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해외 유명 가구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을 아웃소싱하는 등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이같은 시스템 가구 사업에 대해 인테리어와 관련 벽지, 바닥재뿐 아니라 가구류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고객의 요구 증대, LG화학의 기존 리모델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을 진출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위주의 시스템 가구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샘, 에넥스, 리바트 등의 기존 가구업체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 중견 가구 업체들은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기존 국내 시스템 가구 시장은 부엌 가구, 붙박이장 등 각 업체마다 전문 분야를 앞세워 마케팅을 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진출로 가구, 벽지, 인테리어 소품 등을 모두 갖춘 종합 인테리어 유통 전문회사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가구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리모델링이 점차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점차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중소기업체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㉞



1 LG화학은 지난 5월 서울시강서구에 150평 규모의 시스템 가구 전시장 'maison de Z:IN(메종 드 지인)'을 오픈했다. 2·4 전시장 내에는 별도의 고객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다. 3 리바트에서는 주방 전용 가구 브랜드 '리첸'을 선보이고 있다. 5·6 'maison de Z:IN'에는 LG화학이 생산하는 주방 가구와 붙박이장 등 시스템 가구 20여종을 전시하고 있다. 7·8 리첸에서 출시한 빌트인 시스템 주방 가구.